

당본풀이에 나타난 葛藤과 對立

— 松堂·細花·西歸堂 본풀이의 경우 —

高 光 敏*

目 次

I. 序	IV. 葛藤과 對立의 實在的 要因
II. 資 料	V. 結 論
III. 본풀이에 나타난 葛藤과 對立	

I. 序

우리 나라에서 神話의 전승 양상은 크게 두 갈래로 분류된다. 그것은 문헌으로 전승되는 文獻神話와 口傳으로 전승되면서 아직까지도 그 宗教性이 살아있는 口傳神話이다.

제주도에서 심방(巫堂)들에 의하여 주로 굿판에서 불리워지는 본풀이들은 그 종교성이 살아 있는 口傳神話에 해당된다.

이러한 모든 신화들은 太初 神話時代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역사 이전의 역사라지만, 그 속에는 전통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체험들 위에서 이뤄지게 됨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그것은 呪術的, 宗教的 신앙이며, 風俗·慣習이며, 하나의 生活樣式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헌에 정착된 대부

* 民俗博物館 助教

분의 國祖神話들이 그 나라를 창건한 '역사적 경험' 1) 풍습·관습·생활양식·지리·생업—들을 神話的·象徵的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제주도에서 마을마다 좌정해 있는 堂神들의 來歷譚인 당본풀이 역시 그 마을이 설촌되기 시작하면서 겪어 온 역사적 경험들을 신화적·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제주도의 당본풀이들은 어떠한 역사적 경험들 위에서 이뤄졌으며, 그 경험들을 어떻게 신화화·상징화되었을かの 의문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本考의 목적이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이 될 당본풀이는 세 편에 한정되는데, 그 신앙 대상 마을과 당본풀이는 다음과 같다.

1. 北濟州郡 旧左邑 松堂里 (松堂堂 본풀이)
2. 北濟州郡 旧左邑 細花里 (백주도 본풀이)
3. 南濟州郡 西歸浦市 (西歸·東, 西烘堂 본풀이)

위 세 편의 당본풀이에서는 한결같이 堂神들의 葛藤·對立으로 말미암아 하나였던 (마을이 형성되기 이전 상태) 마을이 둘로 分立되고, 더 나아가 婚姻, 牛馬, 심방 등의 왕래마저도 禁한다는 신의 제율이 본풀이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로 흥미롭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제율이 강하게 작용되는 곳 (西歸浦인 경우)이 있는 반면에, 지난 날의 한 舊習으로만 남아 있는 곳 (松堂里, 細花里인 경우)도 없지 않다.

本考에서는, 여러 先學들에 의하여 채록된 당본풀이와 필자가 채록한 자료를 대상으로 본풀이에 나타난 갈등·대립 양상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본풀이에 반영될 수 있는 갈등·대립의 相關되는 실제적 요인들을 신앙 대상 마을들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곧 한 마을이 겪어 온 역사적 경험들이, 한 신화(당본풀이)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작용되었는가(神話的 思惟)를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지는 것이다.

1) 尹以欽(1981): "韓國古代思想: 人間과 社會", 「韓國古代文化와 隣接文化와의 關係」,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 76.

II. 資 料

本考에서 분석 대상이 될 세 편의 본풀이는 여러 선학들에 의하여 정리된 바 있지만, 口碑傳承物들의 모든 자료들은 여러 가지 조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료의 설정이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른다.²⁾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여러 선학들에 의하여 채록된 자료들 가운데서 필자 나름대로 어느 하나를 선정, 그 話素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여타의 자료들까지도 참고하기로 한다.

1. 松堂堂 본풀이³⁾

①서울 남산 송악산에서 태어난 금백주가 좌우천기를 보니, 제주도로 내려가 제주 남방국에서 솟아난 소로소천국을 만나 결혼해야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오래 도읍할 수 있다고 한다.

②좌우천기대로 제주도에 내려 와 송당마을에 사는 소로소천국을 만나 결혼해서 아들 열 여덟과 딸 스물 여덟을 낳는다.

③여러 자식들은 옷, 밥, 젖을 달라고 졸라댄다.

④금백주는 귀여운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하여 꼼꼼히 생각하던 끝에 소로소천국에게 농사짓기가 어떻습니까고 권한다.

⑤夫婦가 넓은 들녘을 돌아보고 난 후, ‘오봉굴왓(田)’에 가서 개경하기로 약속한다.

⑥소로소천국이 오봉이굴왓에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밭갈이를 한번도 구경 못한 동계남상저절 중이 시주 받으러 民家로 내려가다가 밭갈이가 너무 신기하여 구경하

2) 필자는, 한 제보자로부터 채록한 자료일지라도 人工條件의 것과 自然條件의 것이 어떻게 다르게 口演되는가를 자료를 통하여 제시한 바 있다. “濟州島 處女堂 본풀이 研究”, 濟州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82, 資料編 참조.

3) 1982. 1. 13 (음), 구좌읍 송당리 당굿에서 朴仁株 (남, 64)의 굿노래를 채록한 것에 의함.

다 보니, 점심 때가 조금 지나 시장기가 난다.

⑦시주 받으러 가던 중은 밭가는 소로소천국에게 점심밥을 좀 달라고 하여 점심밥 있는 곳을 가리켜 주니, 모두 먹고 떠나 버린다.

⑧소로소천국은 밭갈이를 멈추고 점심밥을 먹으려고 가 보니, 염치없는 중이 모두 먹어 버려 밥을 굵게 될 형편에 이른다.

⑨배는 고프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다가 밭가는 農牛를 때려 죽여서 구워먹어도 만족치 못하여 다시 남의 소까지 잡아먹고 나서는, 소도 없이 쟁기로만 밭을 갈아간다.

⑩이 때, 금백주가 소에게 먹일 꼴을 बे기 위하여 밭에 오고 보니, 소도 없이 밭가는 남편에게 소가 없어진 이유를 물으니, 솔직히 말한다.

⑪마침, 밭옆을 바라보니, 먹다 남은 두 개의 소머리와 가족들이 있어서 화가 치솟는 금백주는 남편에게 살림을 가르자고 고함친다.

⑫소로소천국은 가족과 이별하고 내를 건너 알송당 ‘고부니물’로 가서 강진녀의 딸과 재혼해서 살아간다.

⑬일곱째 아들이 卍變을 막고 와서 아버님께 절 三拜를 드릴려고 하니,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만다.

⑭여러 자식들은, 우리들도 지붕 위에 갓이 걸릴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어머니님 곁을 떠나겠다고 제안한다.

⑮금백주는, 여러 자식들에게 너무 때가 늦어졌다고 측은해 하며, 여러 곳으로 가서 산 설립, 물 설립, 인간 백성들에게 수명장수, 오탁풍성, 육축번성, 재물번성, 농사설비를 시켜 주라고 한다.

⑯그리하여, 자식들은 여러 곳으로 벌어져 산, 물, 밭, 마을 등에 이름을 지어 주고, 그 마을 주민들로부터 낳는 날에는 生産 받고, 죽는 날에는 物故 받는 堂神이 되고, 금백주는 혼자 웃송당에 남아 堂神이 된다.

2. 백주도 본풀이⁴⁾

①서울 남산 서대문밖에서 임정국의 딸로 태어난 백주는 7 세 되는 해에 부모 눈

4) 玄容駿(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PP. 662 ~ 670.

에 거슬러서 龍王天子國으로 쫓겨난다.

②龍王天子國에서는 백주에게 일곱 개의 符術주머니를 주고는, 다시 인간세계로 보내 버린다.

③부모에게 가서 사죄하나, 외면당하고 만다.

④백주는 눈물로 세수하며 제주도에 산다는 外祖父님을 찾아 나선다.

⑤서울에서 忠淸道를 지나 全羅道를 넘어서니, 一千선비들이 노닐고 놀이를 하고 있었다.

⑥백주가 하인을 시켜 선비들에게 가서 악기를 빌어오도록 지시하나, 선비들이 불응하자, 符術로 조화를 부려 一千선비들을 괴롭힌다.

⑦선비들이 사죄하자 다시 符術을 이용하여 살아나게 하고, 거문고를 빌어다가 부모와 이별할 때에 눈물로 세수한 내력을 풀여간다.

⑧선비들과 작별하고 제주 朝天里 浦口로 들어와 堂神인 정중부인의 안내를 받고 외조부를 찾아 나선다.

⑨가는 길에 許 船長의 딸을 만나 여러 가지 대접을 받고는, 그 값으로 呪具 하나를 풀어주며 상단골을 맺는다.

⑩백주는 외조부(천즈님)를 찾아가는 길에 포수인 명등소천국을 만나서 길을 묻는다.

⑪명등소천국은 천즈님의 執事官(거행집스관)이라 속이고는 잠시 집으로 들어가더니, 수렵복 대신 선비 차림새를 하고 다시 나타난다.

⑫그래도 명등소천국의 몸에서는 부정한 냄새가 나므로 ‘투, 더럽다?’고 외치며 도망갈려고 하자, 손목을 부여잡으며 집탈하려고 덤빈다.

⑬더럽힌 팔을 싹싹 깎아두고 명주로 상처 부위를 깼 채 〈천즈님〉을 찾아가 명암을 드리고, 벼루에 물이나 떠놓으며 살려 왔노라고 한다.

⑭백주의 몸에서 不淨한 피비린내가 나서 〈천즈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자, 백주는 명등소천국 때문이라고 말한다.

⑮〈천즈님〉은 패썹한 놈이라피 꾸짖고는, 일방적으로 땅과 물을 가르고 서로 사돈도 맺지 못하도록 공포한다.

⑯백주는 갖고 온 呪具로 풍문조화를 불러주어서 외조부와 함께 마을 사람들로부

터 奉祭 받는 堂神이 된다.

3. 西歸·東, 西烘堂 본풀이⁵⁾

①남편은 바람운, 큰부인은 고산국, 작은부인은 지산국이다.

②제주도 설매국에서 태어난 바람운은 紅土나라엘 다니다가 고산국과 결혼했으나, 妻弟인 지산국의 얼굴이 이뻐서 마음이 흔들린다.

③바람운은 하루 이를 살다가 어느 날 지산국을 데리고 고산국 모르게 한라산으로 도망와 버린다.

④고산국은 남편과 동생이 달아난 사실을 눈치채고 복수하기 위하여 縮地法을 써서 뒤따라 나선다.

⑤따라나선 고산국은 한라산을 넘어 '슬오름(米子峰)'에 이르러서야 도망은 남편과 동생을 만나게 된다.

⑥세 부부간의 神들은 白遮日을 치고 앉았었는데, 마침 사냥길에 나선 김씨 영감을 불러 세워 놓고, 집안으로 인도할 것을 명한다.

⑦김씨 영감宅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인간 냄새가 나서 더 머물 수 없게 된다.

⑧세 부부간의 神들은 더 이상 화합될 수도 없고 하여 '가시머리동산'에서 땅과 물을 갈라 각자 마을을 차지하자고 합의, 고산국은 西烘里, 지산국은 웃서귀(東烘里), 바람운은 알서귀(西婦里)를 차지하게 된다.

⑨아울러, 고산국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서 부락 간에는 婚姻, 우마출입, 목재 반출 등을 서로 금하기로 한다.

⑩세 부부 사이의 神들은 서로 차지한 마을에 좌정하여 마을 사람들로 부터 奉祭 받는 堂神이 된다.

5) 玄容駿(1980); 硯 集, PP. 738 ~ 741.

Ⅲ. 본풀이에 나타난 葛藤과 對立

위 자료들은 한결같이 1) 바다 건너 먼 나라, 곧 海洋他界에서 풍요의 女神들이 어떠한 계기로 제주도에 到來하여(女神到來), 2) 제주도에서 용출한 男神들을 만나게 되지만(大地에서 용출한 男神들), 3) 어떠한 연유로 서로 神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대립, 하나였던 마을이 둘로 나뉘지고 신들은 서로 따로 좌정하게 된다는(葛藤과 對立) 내용의 본풀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마을마다 坐定해 있는 堂神들의 來歷譚인 당본풀이들에 의하면, 바다 건너 먼 나라로부터 제주도에 到來한 女神들이 제법 많다. 그들은 男神과 함께 다정히 한 마을에 좌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本考에서 주로 다뤄지는 당본풀이들처럼 서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따로 좌정하게 되는 내용의 것들도 없지 않다.

전자에 해당되는 것들로는, 濟州市 三陽洞, 北濟州郡 舊左邑 東福里, 月汀里 등의 당본풀이⁶⁾에서 뚜렷하고, 후자의 것들은 주로 本考에서 분석 대상이 될 것들이다.

이들 兩者間의 구체적인 비교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지만, 夫婦로 관념되는 神들이 서로 화합을 이루어 한 마을에 나란히 좌정하게 되는 경우와, 神들 사이에 갈등·대립으로 말미암아 하나였던 마을이 둘로 나누어져 따로 좌정하게 된다는 본풀이 내용의 차이는, 그 마을들이 설촌되기 시작하면서 겪어온 역사적 경험들과 밀접히 관련되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여기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의 양상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女神到來

資料 1,2,3 본풀이에 나타난 女神들은 한결같이 바다 건너 먼 나라(海洋他

6) 玄容駿(1980); 원책, 당본풀이편 참조.

國)로부터 人間事에 必要한 것들을 갖고 제주도에 到來하여 한 마을의 堂神으로 좌정하게 됨을 볼 수 있다.

3.1.1 자료 1 본풀이(松堂堂 본풀이)에서 女神인 금백주는, 서울 남산 송악산, 또는 江南天子國(강남천주국)에서 부모의 명령이 아닌 天命에 따라 제주도에 도래하고 있다. (1-①) 環海天嶼의 땅인 제주도에 와서 男神인 소로소천국을 만나 아들 애기 열 여덟에 딸 애기 스물 여덟을 낳았고, 그 귀여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하여 소로소천국에게 ‘우리가 이 애기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냥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 농사를 지읍시다’⁷⁾고 제의, 거처른 이 땅에 최초로(?) 농경의 신비를 발견한 神으로 본풀이 상에는 형상화되고 있다.

금백주는 海洋他國으로부터 농경법을 갖고 제주도 송당마을에 到來,坐定한 풍요의 女神이다.

3.1.2 자료 2 본풀이(백주도 본풀이)의 女神인 백주는, 서울 남산 서대문 밖 임정국의 딸로 태어난다. 일곱 살이 되는 어느 날 무슨 죄 때문⁸⁾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 눈에 거슬려서 龍王天子國, 또는 龍王皇帝國으로 쫓겨나고 만다. (2-①) 龍王天子國에 사는 사람들은 백주에게 일곱 개의 符術주머니를 주면서 다시 인간세상으로 나가라고 내쫓아 버린다.

일곱 개의 符術주머니를 갖고 인간 세상으로 되돌아 온 백주는 보통인물이 아니다. 무서운 神通力을 지닌 神의 자격을 획득한다. 소지한 呪具를 이용하여 풍악놀이에만 전념되어 있는一千선비들의 버릇을 고쳐주는가 하면, 제주도에 到來해서는, 許氏 船長의 딸을 만나 풍성한 대접의 값으로 ‘급한 경지에 당했을 때만 쓰라’고 하며 呪具 하나를 나눠 주기도 한다(2-⑦⑧⑨). 더욱이나 천조님(백주의 外祖父인 신)과 함께 舊左邑 細花里에 堂神으로 좌정해서

7) 秦聖麒(1968): 「南國의 巫歌」, 濟州民俗文化研究所, P. 496.

8) 玄吉彦님에 의하면, 제주도 堂本풀이에 나타나는 神들은 追放과 定配되어 온 神들이 많은데, 그들은 社會의 고정관념과 일상적 가치관에 반기를 들어 추방을 自招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濟州說話를 통한 濟州島 精神考究”, 濟州大 論文集(12輯) P. 162.

는 신앙민들로부터 잘 대접받으면 잘 대접받은 값만큼, 못 받으면 못 받은 만큼 天候를 마음대로 조종해 주는 呪具를 가진 神으로 좌정한다.

玄容駿님의 論文⁹⁾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바다 건너 먼 나라 (海洋他界)에 聖域이 있음을 믿어왔다고 전제 한 후, 處容朗 望海寺條 (三國遺事 卷二)에 憲康大王이 동해변을 거닐고 있을 때, 東海龍神이 조화(雲霧冥曉)를 부리자 龍神을 위하여 절을 지어 잘 대접했더니 안개와 구름이 걷혔다는 이야기나, 용왕국으로부터 天候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呪具를 갖고 제주도에 도래하여 한 마을 사람들로 부터 奉祭받게 되는 백주의 이야기는 서로 다를 바 없다는 타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같이, 東海龍神이나 백주는 시대와 공간을 달리할 뿐, 한 마을에 좌정해서 신앙민들로부터 奉祭 여부에 따라 天候의 해를 주기도 하고, 그 해로부터 벗어나게도 할 수 있는 무서운 神通力을 지닌 神들이 분명하며, 백주는 바다 건너 먼 나라로부터 人間事에 필요한 것을 갖고 제주도에 到來, 한 마을에 좌정한 풍요의 女神인 것이다.

3.1.3 자료 3 본풀이 (西歸浦, 東·西烘堂 본풀이)는 '제주도 설매국'¹⁰⁾에서 솟아난 일문관 바람운님이 '산 넘고 바다 건너 千里밖의 비오나라 비오千里 紅土나라 紅土千里'¹¹⁾에 사는 女神인 고산국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바람운이 妻弟인 지산국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생긴 갈등과 대립으로 말미암아 서로 여러 마을에 좌정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본풀이이다.

고산국은 산 넘고 바다 건너에 있는 비오나라, 또는 紅土나라에서 태어났다는 말이다. 제주도 설매국에서 온 바람운과 紅土나라에서 결혼해서 살아갈려는 데 '殘惡하고 沒人情'¹²⁾하게도 남편은 자기 동생과 사랑에 빠져 한라산으로 도망가 버리자 (3-③), 心火가 일어 縮地法을 써서 五百里길을 5里로 가고. 千

9) 玄容駿 (1972); "古代 韓國民族의 海洋他界", 文化人類學 (五輯), 韓國文化人類學會, P. 57.

10) 赤松智城·秋葉隆 (1938); 「朝鮮巫俗の研究」, 大阪屋號書店, P. 341.

11) 任智宰 (1975); "民俗文學 (說話)", 「韓國藝術概觀 (民俗編)」, 藝術院, P. 22.

12) 赤松智城·秋葉隆 (1938); 硯紙, P. 347 ~ 348 참조.

里길을 10 里로 달려 제주도에 到來한다. 과연 남편은 동생과 나란히 짝이 되어 단꿈을 꾸고 있었다. 화가 솟구친 고산국은 울분이 충천, 화살을 당겨 죽여 버릴려고 하자, 바람운은 조화를 부려 천지를 캄캄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때 고산국은 층암절벽에 걸려 있는 죽은 구상나무를 끊어다가 썩은 가지를 다듬어 내니 닭의 모양이 되었고, 그것을 층암절벽에다 꽂아 놔더니, 닭이 되어 목을 틀어뺄고 날개로 탁탁 해를 치며 소리내어 길게 울어댄다. 드디어 천하의 모든 닭이 울어대자 안개는 흔적없이 걷히고, 동이 트며 밝은 해가 솟아오른다.¹³⁾

바다 건너 저 먼 海洋他國에서 자신을 배반한 남편을 복수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到來한 女神인 고산국은, 얼굴은 추하지만 縮地法을 습득한 神이면서, 바람운의 도술로 인하여 天地가 접합된 듯 안개로 덮힌 암흑의 세계에 천하의 모든 닭을 울게 만들어 안개의 흔적을 없애 버리고, 태양을 떠오르게 조종한 제주도 천지창조의 神¹⁴⁾처럼, 무서운 神通力을 지닌 女神임이 분명하다.

자료 1,2,3 본풀이에 나타난 女神들의 나라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비오나라 紅土나라・江南天子國・龍王天子國・龍王皇帝國 등등.

이것은 제주도 三姓始祖神話 중 三姓穴에서 솟아난 三神人들-양울라・고울라・부울라-의 배필이 되기 위하여 나무상자에 타고 제주도에 到來한 女神들의 나라가 碧浪國, 또는 日本國¹⁵⁾이라고 막연히 칭한 것과 다를 바 없어, 神話上으로는 바다 건너 먼 데 있는 나라(海洋他國)라는 의미 이상의 다른 뜻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곧 이것은 外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合理化의 修正’¹⁶⁾에 지나지 않는다.

13) 秦聖麒(1968): 뒷책, PP.631 ~ 638 참조.

14) 玄容駿(1977): 「濟州島神話」, 瑞文堂, ‘開闢神話’ 참조. PP.11 ~ 21.

15) 梁重海님의 조사에 따르면, ‘日本國’이라 기록된 문헌은 「李元鎮 耽羅誌」・「朝鮮襄興勝覽」이고, ‘碧浪國’이라 기록된 문헌은, 「耽羅紀年」・「增補耽羅誌」・「編禮抄」・「萬姓大同譜」라고 한다. “三姓神話와 婚姻址”, 「國文學報」3輯, 濟州大 國語國文學會.

16) 黃汨江(1977): 「韓國敘事文學研究」, 檀大出版部, P.140 참조.

玄容駿님은 여러 文獻神話와 口傳神話들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한국민족을 포함한 東南亞細亞 민족들의 海洋他界視까지 고찰한 바 있다.¹⁷⁾

여기에서 고대 한국민족은 바다 건너 먼 아득한 海上, 또는 海中(海底)에 神인들이 사는 聖域이 있었다고 믿어왔는데, 그 나라는 모든 생명과 풍요의 원천 지이며, 樂土요 理想郷인 동시에 인간의 死後, 死靈이 往生하는 곳으로 관념되어 왔다고 한다. 그래서 바다 건너 저 먼 나라의 神들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到來하여 복리와 풍요를 주고 국가를 鎮護해 준다고 믿어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료 1,2,3 본풀이들의 女神들 -금백주·백주·고산국-은, 三姓始祖神話 중 海洋他國으로부터 마소·오곡의 씨앗 등을 가득 싣고 제주도에 到來한 三神女나, 錦繡綾羅·衣裳足段·金銀珠玉 등을 한 배 가득 싣고 鵞洛國에 도래한 首露王妃와 같이 아득히 먼 海洋의 聖域으로부터 符術(백주의 경우), 농경법(금백주의 경우),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술법(고산국의 경우) 등을 갖고 제주도에 到來, 한 마을에 좌정하여 農業神的 性格¹⁸⁾의 풍요의 神, 守護神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自己犠牲을 무릅쓰면서까지 父母神의 뜻을 거역, 우리 인간들에게 생활의 필수품인 불을 전파한 프로메테우스(¹⁹⁾prometheus) 처럼 위대한 文化의 英雄들인지도 모른다.

2. 大地에서 융출한 男神들

자료 1,2,3 본풀이에 나타나는 女神들이 바다 건너 먼 나라(海洋他國)로부터 人間事に 필요한 符術·농경법·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술법 등을 갖고 제주도에 到來, 각기 여러 마을에 좌정한 풍요의 神들이라면, 男神들은 모두 제

17) 玄容駿(1972); 윗글 참조.

18) 神話上에서 여성과 농경, 여성과 풍요 사이에 늘 존재해 왔던 連帶性(solidarity)은 범세계적인 것으로 증명되어 왔다. M, Eliade(1979); 「宗教形態論」(李恩奉 譯, 蜚雲出版社) P.283.

19) T. Bulfinch(1963); 「Mythology」, a modern abridgement by E. Fuller, New York, p.27.

주도(大地)에서 용출, 수렵생활로 살아가는 미천한 神들로 표상된다. 그래서 女神들과는 출생 영역은 勿論, 그 神格들에서도 대립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3.2.1 자료 1 본풀이의 소로소천국은 제주도 남방국에서 솟아나서 (1-①) 농경정착생활에는 익숙치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렵생활로 살아 온 神이었다. 그러던 중 소로소천국은 女神인 금백주를 만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기를 권유받고, ‘여농 남수렵의 생산경제 형태에서 농경경제로의 이동’²⁰⁾ 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그러나 소로소천국은 금백주가 마련해 준 쟁기로 오봉이굴왓(田)에 가서 밭을 갈다가 배가 고프자 농경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밭갈이 소는 물론 남의 소까지 잡아먹어 버렸고 (1-⑨), 이에 화가 난 금백주는 소로소천국을 내쫓아 버린다. 현대적 윤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쫓겨난 소로소천국은 알(下)송당 고부니물(地名)로 가서 白丁인 강진녀의 딸과 결혼하여 계속 수렵생활로 연명하며 살아가는 미천한 신으로 계속 전락되고 만다.

3.2.2 자료 2 본풀이에 나타나는 男神인 명등소천국은 舊左邑 坪垵里 속 칭 명등이에서 솟아나서 ‘地獭皮로 만든 옷에 사냥총을 둘러메고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이나 하며 살아가는 포수’²¹⁾에 지나지 않는 神이다.

어느 날 동네를 지나게 된 백주를 만나자 명등소천국은 그와 결혼함으로써 비천한 신분에서 벗어날려고 꾀한다. 선비차림을 하고 백주 앞에 나타나서 <천주님>의 執事官이라 속일려고 하지만 (2-Ⅲ), 그의 비천한 신분만은 속일 수가 없었다. 겉으로는 양반이지만, 그의 몸에서 不淨한 냄새는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주로부터 거부당한 명등소천국은 계속 비천한 神으로 轉落하고 만다.

3.2.3 자료 3 본풀이의 男神인 바람운은 제주도 설매국에서 솟아난 神이다. ‘할쏘기의 명수’라는 점에서 그 또한 여기저기 다니며 수렵생활로 연명하며 살아가는 神이었는지도 모른다.

20) 玄容駿(1963): “堂神話의 內容構成과 背景民俗信仰”, 濟大學報(6), pp.12~14.

21) 玄容駿(1980): 硯책, P.666.

바람운은 紅土나라엘 갔다가 술법이 대단한 고산국과 결혼하게 되지만, 부인의 얼굴이 추하다는 이유로 배반하고 妻弟인 지산국과 결혼, 같이 제주도로 도망오게 된다. (3-③④) 그래서 본풀이에는 ‘잔악하고 물인정한’ 不倫의 神으로 형상화 되었다.

이와같이 제주도 당본풀이들에서는 男神들이 大地에서 용출했다는 모티브를 보이는 것들이 제법 많다. 제주도 三姓始祖神話의 양을라·고을라·부을라를 비롯해서 北村里의 가릿당 본풀이, 威德里的 본향당 본풀이²²⁾ 등등.

本考에서 다루지는 본풀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大地에서 용출한 男神과 바다 건너 저 먼 나라로부터 到來한 女神들이 서로 만나 화합이나, 대립이냐의 차이 뿐이다.

3. 葛藤과 對立

3.3 제주도 당본풀이들 중에는 女神과 男神이 서로 만나 갈등이나 대립이 없이 다정히 한 마을에 수호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따로 좌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三姓始祖神話인 경우에는, 大地에서 용출한 男神들인 三乙那와 바다 건너 먼 나라로부터 오곡의 씨앗과 물건들을 한 배 가득 싣고 온 三神女들은 서로 짝이 되고, 합의에 의하여 화살로 거주지를 정한 후에는 농경 정착 생활로 들어가 갈등이나 대립이 없이 잘 살아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男女神이 서로 화합하여 한 마을의 수호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경우는 여타의 당본풀이들에도 많은 듯한데, 그중 하나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제주시 三陽洞은 다섯 개의 自然部落들 一가물개, 설개, 벌랑, 도련 1동, 도련 2동 一이 모여 하나의 行政部落을 이룬다. 여러 자연부락들의 중심지인 가물개에 본향당이 있는데, 다섯개의 자연부락 주민들이 모두 가물개에 그들의 諸般事를 수호해 주는 본향당을 모시고 있는 셈이다. 이 堂에는 여러 神들

22) 玄容駿(1980): 硯책, 당본풀이 편 참조.

이 좌정해 있는데, 神들은 서로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어 대립이나 갈등이 없다.

三陽 본향당의 男神은, 島內 여러 堂神들의 元祖라고 일컬어지는 松堂 본향당神인 금백주의 9번째 아들인 시월도병서이고, 女神은 용왕또부인이다. 이들은 夫婦神인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일곱 애기 神들도 같이 堂에 좌정하여 奉祭를 받고 있다.²³⁾

三陽 본향당 본풀이²⁴⁾는 敘事展開가 거의 없지만, 女神의 이름에서 그 전개 of 再構는 불가능하지 않은 것을 것으로 본다. 용왕또부인. 龍王國에서 온 女神이라는 말이다. 더 확대해 보면 本考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女神들 —금백주·백주·고산국—처럼 바다 건너 먼 나라인 海洋他國으로부터 人間事에 필요한 呪具·農耕法·天地를 창조할 수 있는 술법 등을 갖고 와서 이 마을에 좌정한 神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女神은 이 마을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男神인 시월도병서를 만나서 갈등이나 대립이 없이 일곱 애기를 낳고 가물개(三陽二洞)에 있는 본향당에 다정히 좌정하여 다섯 개의 자연부락 주민들로부터 奉祭를 받고, 그 값으로 풍요와 안녕을 약속해 주고 있다.

어느 해엔가 콜레라병이 제주도 전역을 감염시킬 때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 마을만은 그 병이 범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 때 용왕또부인이 이 마을 里長의 꿈에 나타나서, '나는 서쪽으로 양손을 벌려 막아서고, 내 남편(시월도병서)은 동쪽으로 서서 우리 마을만은 전염병이 범하지 못하게 했노라'고 말했다 한다.²⁵⁾

서로 신들끼리 갈등이나 대립이 없을 뿐 아니라, 다섯 개의 자연부락들이 한 데 모여 長을 선출, 한 행정부락을 이루면서 부락들 간에도 갈등과 대립이 없다. 설개(三陽一洞) 부락이 다섯개 자연부락 중 호수가 가장 많으면서도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가 없는 데도 중심부락인 가물개(三陽二洞)에 堂神을 모

23) 拙稿: "濟州島の 神堂들 - ②三陽洞편 - ", 濟大新報 (1980.2.20) 3면 참조.

24) 秦聖麒 (1968): 「南國의 巫歌」, 濟州民俗文化研究所, P.381.

25) ① 1981.12.16, 濟州市 三陽二洞, 梁錦錫 (남·60) 구술.

② 서울大學校 濟州學友會 (1973): 「濟州神堂의 內容 및 現況調査報告書」, P.184 참조.

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하다.

그래서, 三陽洞의 본향당 본풀이는, 신들 사이에 나 여러 개의 자연부락들 간에도 갈등이나 대립이 없었기 때문에 본풀이가 길어질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

이와는 반대로 本考에서 다뤄지는 당본풀이들은 갈등과 대립이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그 원인은 한 마을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믿고, 우선 본풀이 상에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 양상을 알아보기로 하자.

3.3.1 자료 1 본풀이에서 금백주는 天命에 따라 바다 건너 먼 나라로부터 제주도 到來하여 소로소천국을 만나서 결혼, 아들 애기 열여덟에 딸 애기 스물여덟을 낳았다. 이 오망삭삭한(귀여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 걱정 끝에 금백주는 소로소천국에게 산쟁이질(사냥)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농사짓기가 어떻겠느냐고 제의한다. 소로소천국은 금백주가 만들어 준(?) 쟁기를 지고 오봉이굴왓(또는 유봉이굴왓)으로 밭을 일구러 간다.

이 때까지만 해도 앞에서 살핀 三陽 본향당의 夫婦神들처럼 다정했다. 갈등이나 대립 같은 것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곧 太初의 松堂마을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수렵 이동 생활을 청산, 농경 정착 생활을 시작하기로 굳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밭갈이 갔던 소로소천국은 밭 옆을 지나던 중(僧)에게 점심밥을 잃게 되자(1-⑦⑧), 농경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農牛를 잡아먹어 버림으로써 夫婦神 사이에 약속된 농경 정착 생활을 거역하고 만다. 여기에서 부부신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살림까지 갈라야 하는 대립 상태에 이르고 만다.

아~따! 췌도덕놈 물도덕놈인 줄 알아시민(알았더라면) 뭇헛레(무엇하러)아
덜 열유둡(十八) 나명(나면서), 딸 스물 유둡(二十八) 나명 살려(살아왔겠
는가)? 땅 갈라 가라 물 갈라 가라! 어서, '투' 더럽다! 땅 갈르라, 물 갈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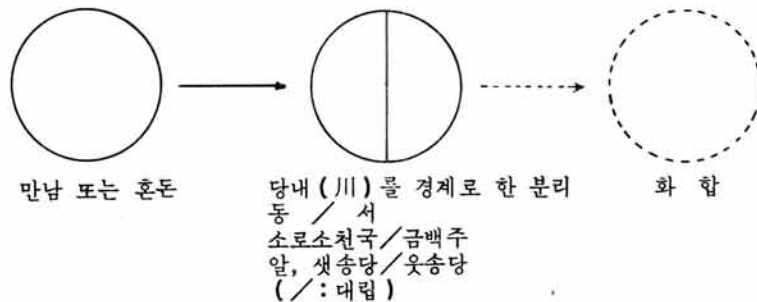
위 내용은 필자가 1982.1.13(음)일 松堂里 본향당에서 벌어진 당굿을 채

록한 내용의 일부이다.

금백주는 일방적으로 농경 정착 생활의 약속을 거역한 소로소천국에게 땅과 물, 곧 생활 영역을 가르고 난 후 멀리 떠나라고 심방(朴仁珠, 남·88)의 입을 통하여 고함쳤고, 현대의 윤리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그것은 夫神인 소로소천국의 떠남이다. 최초로 이 마을에 설립된 당집이었던 당팻(‘설립터’라고도 칭하는 데, 지도 1 참조)에서 내(‘당내[川]’)를 건너 지금의 이 마을 동쪽 끝인 ‘고부니물’로 소로소천국은 쫓겨나 강진력의 딸과 결혼, 수렵 생활을 하며 미천하게 살아가는 神으로 轉落한다. 드디어 이 마을 사이로 흐르는 당내(川)를 경계로 神들의 수호 구역이 구획된 것이겠다.

한편, 금백주는 웃송당에 남아 아들 애기 열 여덟과 딸 애기 스물 여덟을 제주도 여러 마을에다 堂神으로 보내고 난 후,²⁶⁾ 혼자 남아서 웃송당 사람들로부터 奉祭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소로소천국은 고부니물에 좌정, 구획된 당내(川)를 중심으로 마을(셋송당과 알송당) 사람들로부터 奉祭받으며 살아가는 堂神이 된다.

지금까지의 당본풀이 敘事展開는 다음과 같이 圖示²⁷⁾될 수 있는데, 이 구조는 太初 이래 이 마을이 형성되어 온 과정일 수도 있다.



26) 농경을 주창한 금백주 女神의 여러 자식들이 제주도 여러 마을로 내려가서 人間事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수호신이 된다는 의미는, 松堂마을을 거점으로 한 농경 정착 문화의 이동을 상징화한 것인 듯도 한데, 이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27) 이 圖示의 방법은 崔在錫님의 저서 중, 行政部落과 自然部落과의 關係를 圖示한 그림에서 힘 입은 바 크다. 「韓國農村社會研究」, 一志社, 1975, P. 66.

3.3.2 자료 2 본풀이에 나타난 神들은, 그 出生領域에서 이미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女神인 백주가 龍王國으로부터 일곱개의 符術을 얻고 인간세상으로 귀환해서 舊左邑 細花里에 좌정하게 될 神이라면, 명등소천국은 舊左邑 坪垔里 속칭 ‘멍둥이’에서 용출, 수렵생활로 살아가는 미친한 神²⁸⁾으로 행정구역상 평대리에 속해 있는 한 자연부락인 ‘갯마리’에 좌정하게 될 神이다.

백주가 細花里에 堂神으로 좌정해 있는 外祖夫人〈천조님〉을 찾아가는 길에 ‘멍둥이’경에서 소천국을 만나게 되자, 그에게 길을 묻는다. 곧 두 神의 만남이다.

여기에서 두 神이 만났다는 모티브(2-⑩)는 전체적인 본풀이 敘事展開 위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두 신이 서로 만나 다정히 堂神으로 좌정하게 된다면 이는 곧 마을의 통합을 의미하며, 神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대립하게 된다면 두 마을로의 分立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細花里와 坪垔里 중심이 되는 本洞 사이에 위치한 하나의 자그마한 自然部落인 갯마리가,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평대리에 속해 있지만, 평대리와 거리는 1km나 떨어져 있는데 반하여, 세화리와 거리는 100m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은 더욱 이 추측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본풀이에서의 갈등은, 포수 내지는 사냥꾼으로 형상화된 미친한 명등소천국이 백주에게 자신이 〈천조님〉의 執事官(거행집스관)이라 속이고 검탈을 피할려는 데서 시작된다. 명등소천국은 백주를 만나자 집안으로 재빨리 들어가서 수렵복 대신 선비차림으로 옷을 갈아 입고 백주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潔白한 백주를 속일 수는 없었다. 외면상으로는 양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몸에서는 不淨한 냄새가 가시질 않았기 때문이다. 백주가 ‘투 더럽다!’고 외치며 도망갈려고 하자, 명등소천국은 백주의 손목을 잡는다. 백주는 그 더러운 손자국이 묻은 팔목의 살갓을 베어내 버린 후 도망가면서

28) 秦聖麒님은, 전자의 경우를 결백한 神이다 하여 白派神, 후자의 경우를 不淨한 神이라고 하여 黑派神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巫類과 神格의 黑白兩派”, 『石宙善博士古稀記念 民俗學論叢Ⅱ』, 1982, 참조.

(2-13), 자신의 결백을 지킬 수 있었다.

두 神 사이의 갈등은 백주의 외조부인 <천조님>이 알게 되면서 더욱 노골화 되고 철저한 대립 상태에까지 이르고 만다. 물론, 그 대립은 신들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천조님>의 일방적인 선포에 의하여 굴인질(路:지도 2 참조)을 경계로 마을이 구획되고 마는 대립으로까지 확산되어 두 마을 간에는 婚姻禁止・주민들의 往來禁止 등으로까지 구체화된다.

천조님이 공포(公布)한 뒤

「내 조손(子孫)이 오시는데 겁탈(劫奪) ^①하지 마라. 땅 갈르고 ^②물 갈르라. 바른물^③으로 구획(區劃) ^④해야 물도 혼물 먹지 말라. 질(路)도 혼질 ^⑤걸지 말라. 사돈(查頓) ^⑥혼문 떠나간다. 서화리(細花里) 땅 멍기는 조순이랑 간마리 땅에 멍기지 말꼭, 간마리 땅 멍기는 조순이랑 서화리(細花里) 땅 오지 말라」 ²⁹⁾

① 했으니

② 가르고(分)

③ 細花里와 坪垞里의 한 自然部落인 갯마리와 경계선이 되는 路名으로 일명 ‘굴인질’이라고도 불리운다.

④ 같은 물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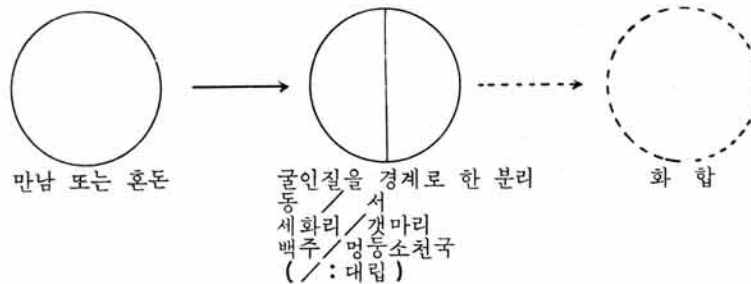
⑤ 一門

⑥ 평대리(坪垞里)의 동네이름(笠頭洞)

그후, 백주는 외조부인 <천조님>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온 呪具로 人間事의 모든 것을 관장하며 細花里의 수호신으로 좌정하게 되고, 명동소천국은 <천조님>의 일방적인 공포에 따라 ‘굴인질’을 경계로 구획된 갯마리에 堂神으로 좌정해 버린다.

이 또한 神들끼리의 敘事展開는, 바로 이 마을들이 太初 이래 형성되어 온 과정과 일치되는 듯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圖示될 수 있겠다.

29) 玄容駿(1980): 硯책, P. 669.



3.3.3. 제주도 설매국에서 용출한 바람운은 바다 건너 먼 海洋他國인 비오나라 (또는 紅土나라)에 가서 얼굴은 醜하지만 술법이 대단한 고산국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바람운은 고산국의 얼굴이 추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거부하고 妻弟인 지산국과 결혼, 제주도로 도망와 버림으로써 (8-①,②,③) 본풀이에서의 갈등은 시작된다.

고산국은 縮地法을 써서 不倫의 남편과 동생을 찾아 비오나라를 떠나 한라산을 넘어서야 겨우 만난다. 세 神은 白遮日을 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낸다 (③-6). 여기에서 백차일은 ‘〈聖스러운 空間〉을 設定하는 宇宙論的 意味와 宗教的 意味를 갖는다.’³⁰⁾ 기 보다, 神들끼리 서로, 對立, 和解될 수 없는 상황을 구체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제주도 一家에서 곳을 치루게 되어, 神格이 서로 對立되는 神들을 부득이 한 祭床에 모셔야만 할 경우에 창호지 등으로 차일을 쳐서 좌정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데서 쉽게 증명될 수 있다.

여러 마을로 分立, 坐定될 神들끼리 米子峰 (슬오름)에서 만나서 같이 하룻밤을 보냈다는 점은, 현대의 윤리로써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본풀이 敘事展開上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제각기 여러 마을의 堂神으로 좌정하게 될 세 神의 만남은, 太初 서귀포에서 마을이 分立되기 전 (分立되게 된 실재적 요인들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임.) 상태를 神話的 思

30) 金和經 (1981); “西歸浦 本郷堂 본풀이의 構造分析”, 『口碑文學 (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 45.

惟로 형상화한 것이 아닐까? 세 神이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마을들이 서로 인
립되기 이전의 암흑의 밤이요, 혼돈의 밤이 아니었을까?

본풀이상에는 그 分立이 신들 끼리의 對立과 葛藤으로 형상화되어 고산국과
바람운과는 물론, 고산국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하여 동생의 姓을 池哥로 바
뀌게 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만다.

세 神은 현재 東烘里와 西烘里 중심에 위치한 가시머리동산(지도 3 참조)
으로 가서 고산국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 화살과 <뽕개>³¹⁾로 땅을 가르기
시작한다.

바람운이 화살을 쏘니 문섬 뒤로 가서 떨어졌고, 지산국은 뽕개를 날려 연
뒤동산, 고산국은 <호탑(土城)>으로 가서 떨어져 서로의 坐定地가 구획 분
립되고, 고산국의 일방적인 공포에 의하여 마을 주민들 간에도 婚姻禁止, 마
울 사람들 간의 敵對關係, 木材의 搬出禁止(東烘里와 西歸里 간에는 除外) 등의
제율이 공포된다.

고산국이 말을 하되

「……………이젠 땅광 물을 갈르라. ① 느네 지경(地境) 물막쉬(牛馬) 우리 지
경 못을 거. 느네 지경 사름 우리 지경 못을 거. 느네 지경 사름 우리 지경 혼
연(婚姻) 못한다. 그러면 나도 동烘리(東烘里) 우알서컷(上下西婦) 거 바레
지 아니홀로라. ② 내 지경(地境) 산에 있는 ③ 나무는 다 내 권리노라. ④ 너네덜이 추
⑤ 물(出物)을 받을지라도 나를 거느리커건 종이 혼 장(一枚)을 ⑦ 거림허영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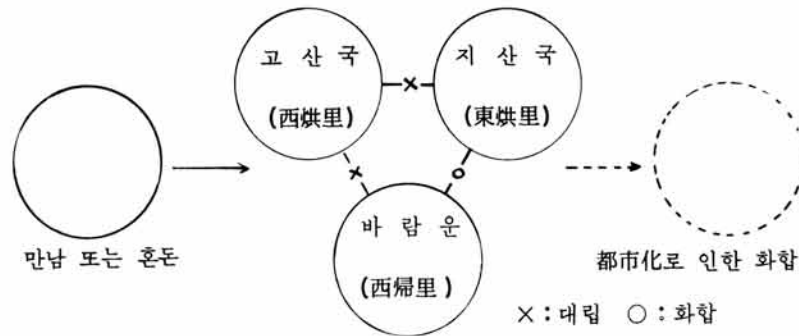
(玄容駿(1980); 뒷책)

[①너희. ②바라지 아니할 것이다. ③나무의 날개. ④너희들. ⑤祭祀에 쓸
음식. ⑥부름 더이면의 뜻. ⑦가림(分界)해서]

이렇게 해서 神들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는 본풀이 敘事展開는 바로
이 서귀포 경에 속하는 세 마을이 太初 이래 형성되어 온 과정과 흡사하다고 보
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圖示될 수 있겠다.

31) 한 발췌된 노끈을 접어 접친 사이에 돌을 집히고, 노끈의 끝을 잡아 빙빙 돌리다가
목표물을 향하여 날려보내는 것으로 사냥하는데 썼던 원시적인 수렵구의 하나.

玄容駿(1980); 뒷책, P.740. 註. 83) 참조.



3.3.4. 제주도 마을마다 수호신으로 모셔지는 堂神들이 來歷譚인 당본풀이들 중에는, 바다 건너 먼 海洋他國에서 人間事에 필요한 것들 -呪具・農耕法 등-을 갖고 제주도에 到來, 한 마을에 좌정하게 되는 풍요의 女神과 大地에서 용출한 男神들이 서로 다정히 좌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러한 男女의 神들이 처음에 다정하게 만났다가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서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드디어는 서로의 坐定地를 구획하여 分立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神들 간의 갈등・대립으로 말미암아 서로 分立되는 본풀이 전개 과정은, 太初 이래 그 마을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논지를 전개해 왔다.

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은 神들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대립으로까지 이어져 하나의 신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西歸浦 경우의 예를 알아보기로 하자.

만약, 西歸里에 거주하는 심방이 西歸里에 가서 굿을 하면 덕(陰德)이 없다는가, 東烘里 사람이 西烘里 행정구역 안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동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서烘리와 上,下西歸(西歸里와 東烘里) 간에 서로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거의 禁忌視되어 온 실정이다.³²⁾

필자가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양 마을 간의 대립・갈등의 원인이나 諸般關

32) 1982.10.30, 서귀포시 송산동 朴生玉(남, 78) 구술에 의함.

係를 금기시하게 되는 이유를 물었을 때, 老少의 차이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老年層의 주민들은 堂神들 끼리의 갈등·대립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연소층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거나, 별로 대립되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라고도 한다.

아무튼, 이웃마을 끼리 갈등·대립되는 실재적 요인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된다면, 그러한 마을간의 갈등·대립을 일으키는 내외적 요인들이 夫婦神 사이에 갈등·대립으로 인하여 서로 分立되게 되는 당본풀이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葛藤과 對立의 實在的 要因³³⁾

마을 간의 葛藤과 對立으로 인하여 分立되게 되는 실재적 요인들은 地理的 階層, 社會的 階層, 經濟的 階層 등의 靜的(또는 內的) 요인들과, 더하여 그 마을의 형성 과정에서 겪어 온 動的(또는 外的) 요인들에서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웃송당 : 셋송당, 알송당³⁴⁾

제주도 중산간에 위치해 있는 山間部落인 이 마을의 실존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마을의 堂神인 금백주가 제주도 여러 마을에 좌정해 있는 堂神들의 元祖로 신앙되고 있다는 점으로 봐서 제법 오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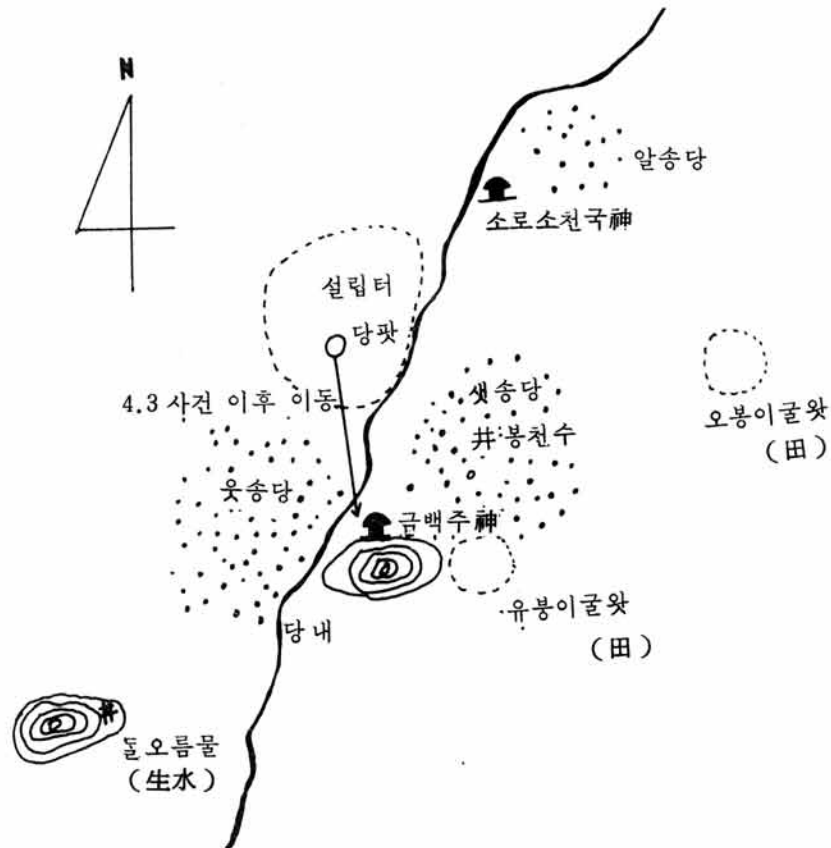
33) 두 마을 사이에 갈등과 대립의 실재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는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의 二元對立 構造分析 方法을 도입, 한국의 民譚과 李朝小說의 종속적, 병립적 구조를 분석한 글에서 힌트는 바 있다.

①金烈圭(1975);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PP.31~52.

②Levi-Strauss(1965); "The Structural study of myth", 「MYTH a symposium」, PP. 81~106. 참조.

34) 여기에서는 松堂里 토박이들인 김반아(남·72)님, 채희주(남·63)님, 이 마을 송당당의 맏인심방이신 박인주(남·64)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과의 수차에 걸친 대담에서 힌트는 바 크다.

< 지도 1 >



이 마을 중심에는 雨期에만 한라산쪽으로부터 해변으로 흘러내리는 물길로 인하여 내(당내)가 형성되었는데, 이 내를 경계로 동쪽마을을 셋송당, 알송당이라고 칭해지는 동네가 있고, 서쪽으로는 오송당이 있다.

4.3 事件(1948) 전만해도 이 마을은 동서로 나뉘어 里長을 따로 선출하는 등 서로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던 듯한데,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대립될 수 있었던 요인을 살필 수 있게 된다.

첫째는 生水와 奉天水의 대립이다.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일텐데, 동쪽 마을 주민들은 거의 봉천수에 의존하여 살아 온 데 반하여 서쪽마을 사람들

은 마을 윗쪽에 위치한 ‘돌오름(峰)’에서 조금씩 솟는 생수(돌오름물)에 의존하여 살아왔다. 물이 넉넉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동쪽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생수를 길어갈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세력이 강한 씨족이 生水를 차지하여 살아왔을 것이며, 이로 인한 양쪽 마을 간의 갈등·대립 요인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同姓과 混姓의 대립이다.

4·3 사건으로 인하여 동서마을이 全燒되기³⁵⁾ 전까지만 해도 동쪽마을인 샛송당에는 제주 고씨와 김해 김씨로 200여 호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알송당에는 정씨·강씨 등 30여 호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동쪽마을이 샛송당, 알송당으로 나뉜 채 각성반이들이 살아온 데 반하여, 서쪽마을인 웃송당에는 거의 同姓인 光山金氏들로 120여 호의 주민들이 살아왔다. 동쪽마을에는 여러 씨족들이 이주하여 살 수 있었겠지만, 서쪽마을에는 거의 씨족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함부로 타 씨족이 이주하여 살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갈등과 대립되는 요인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신앙 대상의 대립이다.

당내(川)를 경계로 한 동서마을 간에는 신앙 대상 또한 달랐다. 동쪽마을 사람들이 고부니물에 좌정한 소로소천국을 그들의 諸般事를 수호해 주는 堂神으로 모셔온 데 반하여, 서쪽마을 사람들은 당팻(또는 설립터)에 좌정한 금백주를 그들의 수호신으로 모셔왔던 것이다.

당할머니(금백주)는 ‘웃송당에 사는 사람들은 내 자손이고, 샛송당 물 먹는 이들은 내 자손이 아니다.’라고 늘 말해왔었다고 김반아(남·72)님은 말한다.

이외에도 두 마을 간의 대립되는 요인들은 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믿지만, ‘당내’를 경계로 한 대립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5) 구체적으로 말하면, 1948년 10월 22일에 전 마을이 전소되어 거의 1년 간이나 마을 사람들은 해변마을에 사는 친척집에서, 그렇지도 못한 경우에는 방앗간에서 보내야만 했는데, 이로 인하여 주로 웃송당에 집단 거주해 온 光山金氏의 경우만 해도 120세대 중 64세대가 타 마을로 완전 이주했다. (김반아(남·72) 구술)

	웃 송 당	셋 송 당, 알 송 당
위 치	西, 上	東, 下
물	生水 (좋다)	奉天水 (나쁘다)
씨족구성	同 姓 (강세)	混 姓 (약세)
신앙대상	금백주 (풍요의 女神)	소로소천국 (미친한 男神)

2. 細花里 : 갯마리 ³⁶⁾



36) 여기에서는 ‘갯마리’ 토박이들인 김효종 (남·55) 님, 高平政 (남·78) 님, 김옥찬 (女巫, 68) 님과 細花里 토박이인 金時和 (남·85) 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과 수차에 걸친 대담에서 힘 입은 바 크다.

이 마을들이 원래는 한 마을이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주민들의 의식이 서로 分立³⁷⁾하게 된 요인들은 外的인 것과 內的인 것 모두가 작용된 듯하다.

다음의 金時和(남·85)님의 구술에 따르면, 倭侵에 의한 外的要因³⁸⁾으로 말미암아 마을이 分立되게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옛날 갯마리는 우리(細花里)마을에 속해 있었다.

그 당시 倭船이 늘 야밤에 來侵하여 주민들을 못살게 굴었다.

官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각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해안을 지키도록 지시하고, 왜선이 들어올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우리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시구역을 둘로 나누고, 서쪽에는 갯마리 동네 남자들이, 동쪽에는 전항동과 합천동에 거주하는 남자들이 지키도록 합의를 보고, 갯마리浦口 중심(지도3 마을 구획선 참조)으로 경계 감시 구역을 정했다.(이것이 오늘날 마을 경계선이 되었음.)

그런데, 어느 날 이 浦口에 倭船이 들어왔는데, 어느 쪽도 官에 보고하지 않아 버렸다.

그 이유는 倭船이 포구 안으로 깊숙히 들어왔는데, 배는 조수의 흐름에 따라 동쪽(갯마리)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細花里)으로도 가곤 해서 양쪽 모두 우리 방어 구역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官에서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우선 갯마리로 갔다. 그 동네 사람들은 왜선이 정박한 구역은 분명 동쪽 구역이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해 버리자, 동쪽 동네 사람들만 데려다가 매질을 가했다.

그후, 동쪽 동네 사람들은 화가 치솟아서 서쪽 동네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 싸움 통해 ‘굴인질’을 경계로 區劃碑를 세우고 마을이 분리되고 말았다.³⁹⁾

37) ‘갯마리’라고 일컬어지는 한 자연부락이 원래는 細花里에 속했었다는 증거는, 당분 풀이에서도 추측이 가능해져니와, 그 거리상으로도 가능하다. ‘갯마리’가 행정구역상으로는 坪垈里에 속해 있지만, 평대리 本洞과의 거리가 1km 이상이 되는 데 반하여, 細花里와의 거리는 1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38) 제주도는 여말에서부터 조선조말까지 근 500여 년 동안 왜구들의 침탈로 시달려 왔다.

倭侵이라는 外的要因으로 말미암아 ‘굴인질’을 경계로 마을이 分立되고 그 경계비까지 세워졌는데, 갯마리의 女巫인 김옥찬(여·65)님은 이 마을이 ‘개명개탁(開明開折)’할 때, 법지법(法地法)을 마련할 때 細花里 堂神인 <천조님>의 명령으로 경계비가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다. 한 마을에 닥쳐 든 외적요인으로 말미암아 마을이 分立되고, 그 경계비를 마을 주민들이 세웠지만, 堂神의 명령으로 세워졌다는 神話的 思惟가 작용된 말이겠다.

마을이 分立되게 된 倭侵에 의한 外的要因 외에도 地理的, 社會的, 經濟的으로 대립되는 內的要因도 작용되었다.

첫째는 斑村과 浦村의 대립이다.

동쪽마을인 細花里가 거의 농업에 의존하여 살아 온 斑村이라면, 서쪽마을인 갯마리는 半農半漁의 성격의 浦村이다.

제주도 어느 지역에서의 경우건 농사를 위주로 해서만 살아 온 斑村 사람들은 어업을 生業으로 하여 살아가는 浦村 사람들을 경시해 왔다. 生業이 다름으로 인한 의식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外的交流가 제한되어 通婚도 거의 禁忌視되어 온 것은 이 마을의 경우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도2>에도 나타나는 下道里와 上道里는 바로 그 例이다. 웃마을이 斑村이라면, 아랫마을은 浦村이라 칭해서 서로 對立關係를 이뤄왔다. 하여, 細花里와 上道里는 서로 斑村이라는 동질관계에 있어왔기 때문에 양 마을은 서로 통혼도 잦아왔다.

세화리가 斑村으로 행세해 온 사실은 1831년 牧使 李禮延 당시에 지금의 제주시 중심에서부터 동쪽 끝인 城山浦에서까지 우수한 儒林들이 이 마을에 와서 유학을 익히도록 하기 위하여 右學堂을 건립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짐작이 가능하다.⁴⁰⁾

둘째는 甘水와 鹽水의 대립이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서건 물줄기를 찾아 자연부락 등이 형성되어 왔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해변부락들에서 자연 용출되

39) 1982.11.10,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金時和(남·85)님 구술.

40) 金錫翼(1918); 「耽羅紀年」, 濟州; 臺州書館, P.103.

卯辛 三十一年 牧使李禮延建右學堂(東在細花西在明月)說齊生稟料…….

는 물들의 鹽度는 일정치 않다. 그래서 염도가 강한 동네 사람들을 보고 ‘짠물동네’ 사람들이라고 칭해 왔다. 바로 갯마리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마을 해변에는 나란히 <웃물>·<상잇물>·<바른물>이 있는데, 썰물 때만 가서 길어다 먹는 물들로 물이 그렇게 썩 좋은 편에 속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細花里 주민들이 줄곧 이용해 온 <모사랑물>은 해변과는 좀 떨어진 곳에서 용출되는 물로 갯마리 해변의 물들에 비해서는 甘水에 속한다. 이 물은 上道里 주민들까지 이용해 왔다고 한다.

이로 봐서, 세력이 강한 씨족이거나 이 지역에 먼저 거주하기 시작한 집단에서 甘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동쪽마을인 細花里인 경우에 합전동에는 軍威吳氏가, 전향동에는 濟州高氏가 主姓을 이룬 씨족 집단을 형성하여 살아온 데 반하여, 갯마리에는 光山金氏, 金海金氏, 濟州梁氏, 白氏 등의 각성반이들이 어울려 살아왔다.

여기에서 ‘굴인질’로 區劃된 양 마을 간의 갈등·대립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細 花 里	갯 마 리
위 치	東	西
물	甘 水 (좋다)	鹽水 (나쁘다)
신 분	班 村 (강씨)	浦村 (약 씨)
씨족구성	오씨, 고씨 (강씨)	김씨(1), 김씨(2), 양씨, 백씨 (약씨)
신앙대상	백주 (풍요의 女神)	명동소천국 (미친한 男神)

3. 西烘里 : 上, 下西歸⁴¹⁾

西歸浦에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꽤 오래인 듯하다. 文獻記錄⁴²⁾에 의하면,

41) 여기에서는 西歸里에 朴生玉(男巫 78)님, 西烘里에 姜文俊(남·59)님, 金學俊(남·28)님, 東烘里에 양문정(여·20)양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과의 수차에 걸친 대담에서 힘 입은 바 크다.

고려 忠烈王 원년(1274)에 元으로부터 빼앗긴 耽羅를 되찾고 난 후, 제주도에 14 縣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西烘里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先人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제법 오래된 것으로 본다.

현재 西烘里와 西歸里, 東烘里와는 당본풀이에도 나타나듯이 서로 對立關係를 유지해 왔지만, 西歸里와 東烘里 사이에는 海村 대 山村으로 대립될 만한 요인이 없지 않으나, 두 마을은 上, 下西歸里, 또는 이를 합친 豐德里라고 일컬어 오면서 서로 화합된 관계를 이뤄왔다. 辛丑年數亂(1901)이 일어날 당시에 天主教人들이 지금의 서귀포시 <솔동산>에 위치한 堂집에 불을 붙여 버리기 전까지만 해도 두 神(지산국과 바람운)을 같이 모셔 왔다.

지금의 西歸里와 東烘里가 먼 옛날부터 화합된 관계를 유지해 온 원인은, 신앙 대상이 동일하다는 사실 이외에도 세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두 마을이 같은 물을 먹으며 살아왔다는 점이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東烘里 주민들이 주로 음료수로 이용하여 온 ‘가시머릿물’과 ‘산짓물’이 合水되어 지금의 서귀포 정방폭포로 흐르게 되는데, 그 물을 西歸里 사람들이 음료수로 이용해 왔다.

둘째는 옛날부터 신분상으로 서로 비슷해서 친해왔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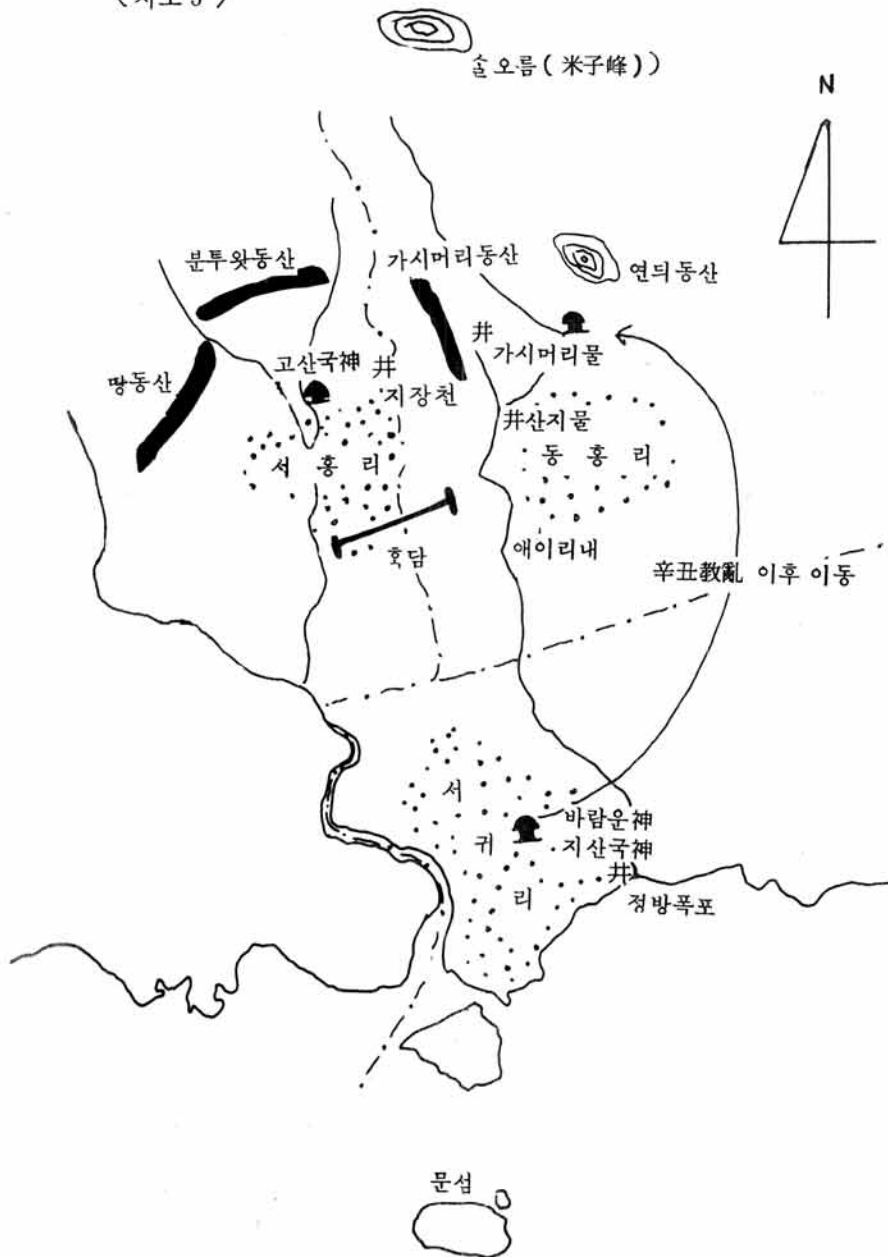
東烘里에는 軍威吳氏와 濟州夫氏가, 西歸里에는 礦山宋氏와 古城李氏가 主姓을 이루어 살아왔는데, 신분이 그렇게 높은 편에 속하지 못한 관계로 서로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당본풀이⁴³⁾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夫婦神(지산국과 바람운)이 上, 下西歸엘 찾아왔으나 어느 누구도 대접하지 않자, 웃서귀(東烘里) 吳氏一家의 한 딸에게 조화를 부려 병을 일으키고 만다. 吳氏宅에서는 우선 下西歸(西歸里) 宋氏一家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리자, 양 마을에서는 堂집을 지어 夫婦神을 모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혔을 때 공동으로 대처해 왔다는 말이 되겠다.

셋째는 西歸里가 거의 해안가에만 집단을 이뤄왔기 때문에 山間에서만 얻을

42) 제주도교육위원회(1976); 「耽羅文獻集」, 李元鎮 ‘耽羅誌’條, P. 208 참조.

43) 秦聖麒(1968); 硯紙, PP. 354 ~ 355 참조.

〈지도 3〉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윗쪽 마을(西烘里・東烘里)과 결탁이 되어야만 할 여건에 처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西歸里 사람들은 東烘里 경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지었고, 떠를 베어다가 초가집을 덮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양 마을은 서로 共生關係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두 마을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 오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西烘里와 上, 下西歸里 간의 갈등・대립 관계를 이뤄 온 실제적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風土의 對立이다.

東, 西烘里를 합쳐 烘爐村이라고 불리어 왔는데, 〈烘爐〉라는 語義 그대로 화롯가(爐辺)에 앉아 불에 쪼여 말리(烘)듯이 따듯한 마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東烘里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우리가 東烘里와 西烘里 사이에 있는 ‘가시머리동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서흥리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땅동산’이, 북쪽으로는 ‘분투왓동산’이, 동쪽으로는 ‘가시머리동산’이 동흥리 사이에서 북쪽으로 내리 뻗는 듯하여 凹字 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서흥리에서는 이러한 자연조건함으로써 부족하여서 西歸里쪽인 남쪽이 虛하므로 재앙이 빈번하다고 여겨 高敬夫氏가 里長인 당시 土域(본풀이상에는 ‘혹탐’)을 수축하고 주위에 소나무까지 심었다. 44)

그래서 서흥리는 화로의 테두리처럼 산과 土域으로 둘러싸였지만, 동흥리는 이 둘러싸진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리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한 풍토의 차이는 대단하여 한라산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산바람은 빗겨스치기 때문에 서흥리는 매우 온화하지만, 동흥리에는 西歸浦쪽에서 불어오는 海風과 한라산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이 마주쳐서 서흥리의 풍토 조건과는 대조를 이뤄 왔다.

44) 혹담(土域) 由來 간판 참조. 1981.7.15 일 서흥리에서 세움.

둘째는 물의 대립이다.

西烘里 주민들은 마을 안에 있는 지장샘(泉)의 물을, 上, 下西歸里 사람들은 겨울에는 가시머릿물을, 여름에는 산짓물을 이용하며 살아왔다. 지장샘은 생수로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데 반하여, 산짓물은 여름에만 솟기 때문에 ⁴⁵⁾겨울에는 마을 윗쪽에서부터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가시머릿물을 먹으며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셋째는 農作形態의 對立이다.

西烘里 주민들은 물이 풍부하고 온화한 땅에 거주하면서 主畚農從田作 형태를 유지해 온 데 반하여, 上, 下西歸里는 풍토가 서흥리에 비하여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主田作從畚農 형태를 유지해 왔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대립되는 요인들에서 살펴 볼 때, 세력이 강한 씨족들은 풍요의 땅인 西烘里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왔을 것이고, 세력이 약한 씨족들은 그 이웃 지역에 살아오면서 두 세력 간의 갈등·대립은 늘 상존해 왔을 것이며, 서로 人的交流(通婚 등)의 제한도 있어 왔을 것이다.

그래서, 서흥리 사람들은 주로 好近里·西好里·吐坪里(班村들)와 通婚圈을 이뤄왔고, 上, 下西歸里 주민들은 甫木里·下孝里·中文里(浦村들) 등과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서 양 마을 간의 갈등·대립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東 烘 里	上, 下西歸里
위 치	西	東
풍 토	온화(좋다)	온화하지 못하다(나쁘다)
물	지장샘(좋다)	가시머릿물, 산짓물(나쁘다)
농작형태	主畚農從田作(풍요)	主田作從畚農(가난)
신앙대상	고산국(풍요의 女神)	지산국과 바람운(不倫의 神들)

45) 동흥리 마을 안에 위치한 '산짓물'이 여름에만 솟는 이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물이 겨울에는 제주시에 있는 산짓물로 시집가 버리기 때문이라고 전설화되어 구전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相反되는 여건들은 이웃마을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낳아 왔음을 보아왔다.

물이나 풍토 등의 제반조건이 좋은 마을에서 세력이 강한 씨족이 거의 同姓部落의 성격의 집단을 형성하여 班村 행세를 해 왔고, 그렇지 못한 마을에서는 세력이 약한 여러 씨족들이 모여 浦村 내지는 民村을 형성하여 살아왔다.

이렇게 두 마을 간에 화합할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당본풀이 상에서는 夫婦로 관념되는 神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으로 상징화된다. 그래서 세력이 강한 집단에서는 풍요의 女神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모셔왔고, 그렇지 못한 집단에서는 미천한 男神이나, 不倫의 관계로 형상화된 神들을 그들의 堂神으로 모셔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1. 濟州島 당본풀이들에서 볼 때, 夫婦로 상징되는 神들이 서로 화합을 이루어 한 마을에 다정히 좌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夫婦神들 사이에 葛藤과 對立으로 말미암아 서로 수호 내지는 좌정 구역을 나누게 되는 것들도 있었다. 그 갈등과 대립은 양 마을 주민들에게까지도 파급되고 堂神들의 이야기인 본풀이를 통하여 마을간의 갈등·대립을 合理化시켜 왔다.

이러한 양상은, 그 마을들이 설촌되기 시작하면서 겪어 온 歷史的 經驗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믿고, 本考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알아본 후, 그러한 양상을 낳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實在的 要因들을 현장 조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2. 본풀이상의 갈등·대립 양상은, 바다 건너 먼 나라인 海洋他國으로부터 人間事에 필요한 것 一呪具, 農耕法 등—들을 갖고 제주도에 到來한 풍요의 女神과, 狩獵神의 性格의 미천한 男神이 만나게 되나, 서로의 갈등과 대립으로 말미암아 分立하게 된다.

3. 본풀이상에 나타난 신들 간의 갈등·대립으로 인한 분립은, 양 마을 주

민들 간에 옛날부터 있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갈등·대립의 실제적 요인들—물·풍토·씨족 분포·상업·형태·왜침으로 인한 外的要因—이 규명되면서, 그러한 본풀이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는 곧 본풀이의 갈등·대립 양상은, 양 마을 간에 실제적으로 상존해 온 갈등·대립의 양상을 神話的 思惟로 形象化했다는 것이다.

4. 세력이 강한 집단에서는 풍요의 女神을 차지하여 살아왔고, 그와 대립되는 집단에서는 미친한 男神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모셔 온 셈인데, 양 세력 간에 늘 상존해 온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당본풀이를 통하여 合理化되어 왔다.

5. 그러나, 오늘날 양 세력(마을) 간에 갈등과 대립이 될 만한 실제적 요인(특히, 물)들은 없어지게 되었다. 물·班村과 浦村·산업 형태 등등. 그로 인하여 松堂里인 경우에는 4·3 사건 이후 마을이 합쳐지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堂神(금백주)을 같이 모시고 있고, 행정구역상 坪岱里에 속한 <갯마리>인 경우에는 국민학생들이 원거리에 통학해야 하는 불편 등의 이유로 행정구역상 細花里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西歸浦인 경우에는 都市化로 인하여 마을 간의 갈등·대립이 될 만한 실제적 요인들은 찾아 볼 수 없게 변모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마을들에서 신앙 형태 또한 앞으로 변모하여 갈 것으로 보인다.